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병수



지난 12월 20일 대구의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매스컴엔 이 사건이 매일 보도되었고 인터넷에서는 나름대로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몇 일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사람들은 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1년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재학기간 동안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23%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이 중 54%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에 대한 분석 결과, 응답자 중 14%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20%는 많이 고통스러웠다. 27%는 고통스러웠다고 대답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이 방관할 수준을 넘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매스컴보도에 의하면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은 과거에 별 없던 평범한 학생

학교에서는 입시 교육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공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자체적으로 모색하거나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와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사후대책보다 예방교육을 통해서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상책이다. 피해 학생들이 부모, 선생,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지만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예선이 문제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 우체통 또는 사물을 통해서 또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전문가들이 무료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현실에서 뿐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다른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폭력이나 왕따로 번질 때 더욱 통제하기가 힘들어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학교 폭력 피해 시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8%),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9%), 알려지는 것이 창피할 것 같아서(15%), 보복 당할 것 같아서(13%) 등이다.

많은 학생이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모른척 하는 것(62%)도 큰 문제다.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뒤에 학교가 어떻게 폭력이 방지될 수 있는가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면 피해자 또는 폭력을 목격한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폭력이 가져오는 고통을 학생들에게 실감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책일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도를 설치하는 비용 때문에 건물주들이 주저했을 때 그들을 초대하여 신체장애자처럼 휠체어를 타고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느끼도록 한 경우 도 봤다.

한국의 학생들도 피해자로 하루 동안 살면서 가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외면하거나 또는 무감각하게 받아들여 장난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태는 없을 것이다.

〈美 일란(Elon) 대학교 언론학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해법은 없나

인에게 물어보면 정직한 대답을 얻기 힘들지만 익명의 설문 조사를 통해 학교 전체를 상대로 하면 의외로 학생들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또는 목격할 폭력사태나 따돌림, 그에 대한 문제의식, 신고의 문제점 등을 말함으로 사태 파악이나 해결 방법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의 처벌제도가 약해서 이런 사건이 생긴다고 믿고 강력한 처벌을 옹호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처벌이 사건을 방지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가정하에 통한다.

의료 칼럼



강채미

목감기에 좋은 수세미차 아세요?

집에서 어렵지 않게 직접 만들 수 있거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감기에 도움이 되는 차를 소개한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서 추운 겨울철에 마시는 최적의 차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겨울철 목이 칼칼하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더욱 효과적이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가 마시면 혈압이 상승되기 때문에 주의하고 열증상, 소화의 초기에도 삼가는 것이 좋다.

양 강장, 이뇨 작용과 함께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피로회복, 무기력해소, 노화방지에 좋으며 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피부를 하얗게 하고 주근깨를 없애는 효능도 있다. 모과차는 겨울철 약해지기 쉬운 목을 보호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으며,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건조한 겨울철 거칠어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인체 내에서 신진대사를 돕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해서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식욕을 돋우기까지 한다. 한의학에서는 모과의 신맛이 탈진된 기운과 풀어진 근육을 추스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 각종 위장병과 근육통 등에 처방하고 있다.

기고



송광운

'나눔의 힘' 행복바이러스

북구장학회가 발족된 지 4년째. 그동안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기탁금과 구비로 조성된 장학금이 39억 원을 넘어섰다. 목표액인 80억 원을 조성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벌써 580여 명이라는 학생들이 혜택을 입고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만 4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을 증명이라도 하듯 기금이 불어나고 수혜의 폭도 늘어나면서 북구장학회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인사도 드물어 '티끌'로 모아진 소중한 장학금이다. 북구장학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부와 나눔이 얼마나 사회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활력소 인지를 새삼 실감하게 한다.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만이 베푸는 삶이 아니다. 적은 것이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사소한 효과가 극대화된다. 나눔은 재물의 부유함보다 사랑의 부유함이 앞선다. 소액의 차이보다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은 물질보다 먼저 마음이라는 것이다.

주유소 세차장 사고나면 대형...안전 규정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현재 1800만여 대라고 한다. 그중에 자가용 승용차는 1300만대로 73.5%나 된다. 아마도 한 집에 한 대씩 모두 다 자가용이 있다고 보면 맞을 듯하다.

장과 손세차장이 있지만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이쪽에 딸린 터널식 자동세차장을 이용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일전에 경기도 수원시 한 세차장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나 깜짝 놀랐다. 이는 경기도 수원시의 일이 아니라 우리 광주의 어느 주유소에서든 이런 사고가 일어나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주유소에 저장고를 만들어 놔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아닌가. 유사석유가 아니더라도 주유소 세차장은 물과 기름, 전기 등이 뒤섞인 위험한 곳이다. 이들이 어떤 화학적·전기적 반응을 일으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세차기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일제점검을 벌여서 시민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주유소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유사석유가 아니더라도 주유소 세차장은 물과 기름, 전기 등이 뒤섞인 위험한 곳이다. 이들이 어떤 화학적·전기적 반응을 일으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세차기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일제점검을 벌여서 시민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주유소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시설

광주비엔날레재단 '밀실 운영' 언제까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이사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밀실 운영'을 하고 있어 반쪽을 사고 있다. 재단은 최근 '제124차 이사회'를 열고 2011년 결산과 2012년 예산을 확정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데다 이사회 자료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결산서상 총액만 공개된 채 세부 사용내역이 빠져 있다고 한다.

표하지 않아 시민들은 주제로 정한 '라운드 테이블'이 어떤 동기로, 무슨 의미를 담아내기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광주의 예술적 전통과 5·18정신을 문화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난 1995년 창설돼 세계적 행사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가 시민의 눈·귀를 가린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 정적이었던 재단 팀장들을 계속적으로 바꾸는 등 광주시의 권위를 키웠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때문에 이에 반발한 팀장 4명이 6개월째 계약서류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출범 당시 이사회를 계속 공개했던 재단이 지난 2008년 '107차 이사회' 이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단은 비공개에 대해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한 해 80~9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투명성을 높이는 게 오히려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시설에서의 안마 강요는 성추행에 준하는 행위이자 다수를 폭행해온 사실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관할 및 감독기관인 광주시와 관공서, 시교육청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게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닌가.

밀실 운영은 이번만이 아니다. 내년도 비엔날레 전 준비과정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해 놓고도 주제 선정과정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28일 인화원에서 안마 강요행위와 폭행 등이 발생한 사실을 밝혀내고 생활교사 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고발 조치된 생활교사 7명을 포함한 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사법적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며, 관할·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엄밀한 조사도도 감압적인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생활교사가 원생들을 폭행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인권위 조사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그림카드를 제시하자 생활인 다수가 동일한 생활교사를 지목했고, 내부 폭행을 목격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나왔다. 또한 의술과 물품 제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인권침해적 상황도 드러났다.

인화원서도 폭행·안마 강요해 왔더니

영화 '도가니'의 무대가 된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복지시설인 인화원에서다 성추행 및 폭행 등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28일 인화원에서 안마 강요행위와 폭행 등이 발생한 사실을 밝혀내고 생활교사 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지관도 차체에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이사 파견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회 복지사업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줄임말이다. 라디오 전깃줄로 묶여 끌고 다니며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고, 문구용 갈로 팔목을 갖고... 수용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당한 중학생이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생을 품는다"는 규칙을 만들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친구를 놀리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퇴학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친구를 '바보(stupid)'라고 놀렸다가 부모가 일주일 동안 교실 한구석에서 벌을 서다시피 해야 하는 등 미국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 정도의 차이를 막론하고 용서되지 않는다.

어른들이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학교폭력이 이렇게 잔악해졌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호들갑을 떨다가 금방 망각하고 마는 한 국적 상황이 이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할 뻔이다.

뉴저지의 경우 올해부터 학교 내 왕따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교육당국은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들에 비하면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크고 작은 폭력에 얼마나 방관하고 있었는지 반성케 하는 대목이다. '왕따문화'는 세계 어디서든 존재한다. 교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은 개인이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무관용 정책에서 시작된 다. 대구 중학생처럼 학교가, 사회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왕따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노르웨이 초·중생들은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멈춰(STOP)'를 외친다.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받아온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몸에 밴 결과다.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다. 노르웨이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82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뒤였다. 학생들 스스로도 학교폭력을 주체로 한 학급 회의를 수시로 연다. "우리는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는다. 괴롭힘 당하는 학

단 따돌림이나 폭력은 개인이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 근절은 무관용 정책에서 시작된 다. 대구 중학생처럼 학교가, 사회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왕따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른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교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